



신안군, 재해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 실시

신안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거동불편 단독세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5일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

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10% 이상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해 취약계층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서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속에 본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신안"을 위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김원유 기자 wonyoo9700@

태양광비리 발목에

전남 청렴도 또 '최하위'

종합청렴도 광역자치단체 4등급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높아

전남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 나지 못했다.

5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종합청렴도(2017년 7월1일~2018년 6월 30일)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4등급)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청렴도가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분야별로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지난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관련 직원이 파면된 부패사건으



전남도청 전경.

로 감점이 광역평균보다 높아 청렴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는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의 부패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15위,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2015년 16위, 2016년 꼴찌에 이어, 4년만에 13위로 재진입한바 있다.

김장오 전남도 청렴지원관은 "앞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토대로 도민이 행복한 청렴전남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관리 등 청렴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월 당선자 시절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3위를 한 것을 비롯해 도의 청렴도가 몇 년째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에 놀랐다"면서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로 하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 무안=양수년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완도군, 오늘 '장보고 대사 추모 다례제' 개최

추모·도전정신 계승 마음 담아

완도군과 장보고연구회가 오는 6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 제1177주기 추모 다례제'를 개최한다.

장보고 대사는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정신으로 동북아 해상 무역을 펼쳤다.

다례제는 이러한 장보고 대사를 추모하면서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그의 꿈과 도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봉행하는 제례 의식이다.

행사는 기관 단체장들이 헌화와 차를 올리고, 시 낭송가 박영자 님의 헌시 낭독, 무용가 박일자 님의 지전무로 대사의 넋을 달래는 시간을 갖는다.

완도군과 장보고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다례제는 전통 공연, 시낭송 등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게 준비된 만큼 일반 주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을 우리 세대가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그동안 장보고 기념관 및 동상 건립, 장보고 공원 등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혁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장소인 사적 308호인 청해진 유적을 보존하고자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진 기자 wando110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5일 2019년도 청소년 해양체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목포시, 해양환경공단목포지부, 전남요트아카데미, 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등 총 5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은 '18년도 청소년해양 체험 사업추진 성과 및 '19년도 계획에 대



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체험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 기관은 요트승선(목포시·전남요트아카데미), 해양

환경교육 및 방제시설견학(해양환경공단목포지부), 카누·카약체험(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해양안전교육(전남요트아카데미), 갯벌체험(무안생태갯벌센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청소년 해양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4월초부터 10월까지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090명(35개 학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목포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 실태조사.

목포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 실태조사

목포시가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위생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차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사원 30명을 통해 진행되며 위생업소 4,667개소(일반음식점 4,036, 식품자동판매기업 306, 숙박업 325)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내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힘입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책을 수립하

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인허가 및 무단 폐업 확인 ▲음식 주메뉴 ▲수용인원 ▲업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외지 관광객 이용 실태 ▲목포만의 음식 메뉴 개발 ▲가격할인 음식점 참여 ▲숙박업소 운영실태 ▲객실요금 및 숙박 형태 ▲객실내부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위생업소를 방문해 설문·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인천시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천시는 가스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가스 시설 80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 군·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스사고의 33%가 동절기에 일어나고 있어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는 물론 범시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시는 LPG충전소,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법적 시설기준 준수여부, 가스공급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노후시설 방치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취약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시민 모두가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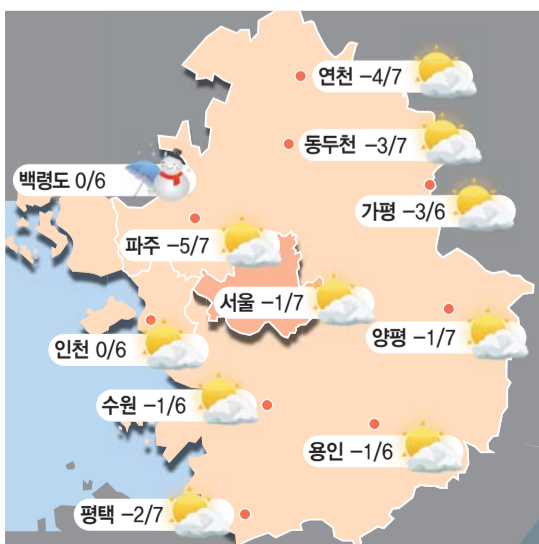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질 / 17:13

12월 6일 (목)
음력 : 10월 29일

수도권 날씨
-1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